과학기술, 위험사회 그리고 미디어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과학기술로 구성되거나 매개된다. 정보처리기술, 유전공학기술 등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혁신됨으로써 새로운 지식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술문명이 발전할수록 물질적인 풍요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정착 우리의 삶은 점점 불안하고 위태롭고 피폐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현대사회가 낡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인간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따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비행기 사고, 건물 붕괴 및 화재, 도시가스 폭발 등 과학적 시설에서의 대형사고, 교통사고와 환경오염, 지하철 안전사고, 식품 및 약품의 위해성, 핵발전소 누출과 화학공방의 폭발위험, 유전공학에 의한 생명조작 등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연환경이 우리 삶에 불만과 위험을 주는 원인이었다면, 오늘날은 기술환경이 이를 대체한다. 대형 기술시스템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와 과학기술의 일상성으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의 기술사회에서는, 기술시스템에 포함된 특정 구성요소의 사소한 문제가 기술시스템 전체의 순간적인 봉괴로 이어지는 대형기술사고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근대화가 초래한 이러한 사회구조의 딜레마에 대해 독일의 사회학자 오리히 베크(Beck, U.)는 '위험사회(Risk Society)'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사전적 의미로 위험(위기)이란 '위태함, 손실·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 안전하지 못함' 등의 의미를 갖는다. 위험은 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적, 기술적, 사회적 위험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자연적 위험은 인간이나 인위적인 기술과는 무관한 자연현상의 급변, 천재지변, 혹은 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재앙(Disasters)으로 이어진다. 기술적 위험은 건물이나 교량의 붕괴, 공장폭발, 오염 등 인공적 산물이나 기술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사고물(Accidents)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험은 사기, 절도, 방화, 폭력 등 순수하게 인간 행동만으로 인해 비롯되는 사건들(Incidents)과 관련된다.

위험스러운 사회, 과학기술의 공습. 그다만, 이는 인간의 위험을 두려워 하는가? 이는 위험의 포함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위험에 대해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 자발성(위험한 스포츠 등) 보다는 비자발성(환경오염에 대한 노출 등)
- 불균등한 분배(어떤 사람만 이익을 보고, 다른 사람은 고통받을 수 있음)
- 개인로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
- 잘못된 판단이나 전문 온건한 원천(source)로부터의 발생
- 자연발생적이기보다는 인간의 의지로 발생
- 장착하여 치명적인 해를 야기, 예진 후 주출 수년 후 질병 발병
- 여린 아이나 엄산부, 나아가 미래세대에 위해 위험를 초래

- 특별한 질병을 만들어낸으로써 치유의 총포 아기
- 약병의 회복자가 아닌 약로 있는 사람에 대한 위험
- 과학적 증명이 기려진 경우 반면
- 전문가들조차 의결일치를 보이지 못하는 불안정성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위험 위험과 관련되는데, 인간의 영향을 수반하게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모든 위험은 본질적으로 기술적-사회적 성격을 지닌다. 기술적, 정치적, 사회적,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위험으로 간주된다는 견해이다. 정책, 경제시스템의 실패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위험은 실제지만도 동시에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 위험의 실행성은 종결로부터 온다. 즉 계속되는 산업적, 과학적 생산세계로부터 온다.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인간호르몬체계의 변동 등 과학기술 문제를 만들어낸 위험을 통하는 복잡한 무수하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에 대한 지식은 개별문화의 역량과 상응 그리고 사회적 지식의 그룹
방(Grid)으로부터 나온다. 때문에 같은
위험에 대한 인지적 반응이 나타와 문
화에 따라 매우 다르다.

한강의 기적, 인터넷 대국. 그러나...
'한강의 기적'으로 칭송받은 한국의
근대화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다 준
반면,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고도
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각 부문이 빌미
하게 평창했고, 이런 문제를 관리하는
방식은 미흡했다. 이로 인한 위험은 무
작위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고
도로 구조화된 것이다. 근대화의 내재
적 결함에 의한 것이다. 그에 따라 다양
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 환경 및 생태계 문제: 수질오염, 공
기오염, 대양오염, 특히 수돗물 오염에
관한 문제이다. 동시에 국토개발과 원
자력 발전에 관한 위험의 문제가 폭발
력이 갖고 있다.

- 정치·경제 문제: 기업, 금융, 노동
시장 등의 구조적 위험요소와 함께 대
량생활을 위한 안정적·경제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사회도처에 만연된 부패로 인해
정치학적 복잡 사회 모든 부문의 부실화
가 축적되었다.

- 사회·문화 문제: 여성의 입장에서
중가하는 성폭력과 성희롱 오해로 가
부정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가공할 위험
이다. 사회적 신뢰의 부재는 우리사회
의 정신적 황폐함을 의미한다. 교육의 부
실화로 인해 교육의 위협을 생산해내는
촉도가 높아진다.

- 대규모 사고 문제: 도시의 부설건
축, 교통사고, 가스사고 등 변방한 대
규모 안전사고는 위험사회의 예를 극명
하게 보여준다. 건강과 질병, 질병오염,
등에 관한 대중의 불안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으로 상기되는 사이버공
간의 물리적 확산은 시간과 공간의 제
약을 넘어 누구나 자유로운 접근이 용
이해지며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정신적 여
건은 불분명한 양상을 보이며 오히려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것에 더불어 부정적·경제적 사회현상을
이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에 대한 위협.
정보통신 시스템의 집중화와 대규모화
에 따른 제한 가능성, 정보의 범죄적
가능성, 인간상 상실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인하여 형성된 일정한 영
역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
리므로 현실세계에서 범죄가 필수적으
로 발생하고자 지속적으로 사이버세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신증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양각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신증범죄로

-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위험 경보
- 삼풍백화점 불법사건과 같은 일정지
역에 한정된 사건사고와는 달리 원전수
거물 처리장(핵폐기물 처리장). 광우
병, 에이즈, 조류독감과 같은 불특정다
수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의
전형성은 신문, 라디오, TV가 제보하고
하는 정보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위험에 대한 사회 정보시스템은 정확적
으로 미디어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예측되는 위험 또는 일상에 숨겨져 있
는 위험들에 대해 미디어는 끝없이
발견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린다. 신문과
방송은 항상 자유자재하고, 기술경험사
고, 환경조사, 위험적인 기후 환경변화,
원자력, 유전자조작에 관한 기사를 돈
가리로 통합한다.

미디어의 보도에 따라 대중은 항상
위험에 대한 각각을 일각하는 많은 미
량한 언론으로 들려주게 된다. 여기서 미디어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위험의 강제적인 분성을 이용한
다. 뉴스거리가 펼쳐진 절반 위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고의 정도가 과장된
다. 특히 사고 없을 경우 위험은 뉴스
거리가 되기 때문에 미디어에게는 중요
한 소재이다. 미디어는 인간의 안정
된 요소들보다는 새로운 사건들을 선호
하기 때문에 대중적 위험은 매력적인
제재가 되는 것이다. 미디어의 표시는
지역적인 계열을 전 세계에 전달함으로
써 위험에 대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다. 미디어가 없다면 많은 계열들은 사
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채, 단지 그
에 연루된 사람들의 문제에 불과하게
공포의 확산, 누구를 위한 보도인가
“조류독감 인체 치사율 75% 닫을 수로”(조선 1.30), “조류독감 사망자 계
속 증가, 에이즈보다 무서울 수도”(한국 1.29), “대유령 멜 시계 114명 감
염 예상”(파이낸셜 1.29), “조류 독감 인건감염 시한봉”(서울 1.30), “조류
독감에 걸린 어사 정계 경제 혼란”(동아 1.29). 이러한 헤드라인은 조류
독감 사태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경
향을 대변한다. 4.5단계 헤드라인은
권자들 빈은 감염률을 이르러 무겁게
독자들에게 경고한다. ‘남고기는 먹지
말라고’.
조류독감과 관련하여 우리 언론은 한
마디로 추측, 파장, 단정적인 보도를 거
침없이 끊어나왔다. 선점주의와 과학보도
의 문제점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언론
은 ‘공공의 이익과 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특성과 기관간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그
럼에도 특정 사실(조류독감 사태)을 지
나쳐게 강조해 독자와 시청자의 도덕
적·심미적 감성을 자극하여 실제보다
부풀리고 흉미로움을 더하기 위한 기사
의 원칙 뿐이다.
‘수용자들은 이런 보도에 중독되거나
마취되어 굴중심화에 빠져든다. 이론과
’~카타리’식으로 어려워드мысл면서 본질
과는 다르게 집단 체면상태에 빠져고
마는 것이다. 신문의 보도사건과 방송
의 영화화는 보다 극적으로 사태를
바라보게 한다. 타고 흉기에 날아오르
d가 방 역관계자에 의해 산체로 떠
들리는 장만, 도살처분한 담이 빠래하
는 보도사건들은 맘연한 공포감을 확산
가져서 충분하다.
조류독감을 포함하여 위험과 관련한
보도에서 언론의 역할은 예방적 기능과
몇번한 분석을 통한 이상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과학적 정보제공기관이 정점
에서 중요하게 있다. 막혔던 사실에 의
하면, 조류독감이 인간에게 전염될 확
률은 매우 낮다고 한다. 특히 감염경로
를 보면 조류독감에 걸린 담·오리 등
의 배설물과 직접 접촉한 사람만이 감
염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전
염된 사례는 없다. 감염된 담enu고 cerv기
때에 식재료로 유통될 수도 없다. 심
상이 이론보다도 우리 언론을 통해 유
도된 조류독감은 오해와 비상스럽게 양
날개가 닫고 운동한 피해자를 양산해
냈다. 낙농가들은 절제적인 피해자이고
요리/수바안한 업체들, 달이 초
종소비자들이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
한 불신을 조장하는 염정난 피해를 가져
온 것이다. 위험시태를 보도하는 언
론에 성찰이 요구되는 맥락이다.
지식, 과학기술효용에 대한 성찰 필요
위험은 지식에 의해 구속된 것이다. 예
컨대 생태계에 대해 우리가 다 많이
알수록 우리는 무지로부터 해방된 출발
이지만 위험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위험의 원천은 무
지가 아니라 지식적인 것이다.
오늘날 사회는 과학과 담리 과학기술
이 과학기술자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
속의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정력
하게 관찰을 받는다. 비록 과학기술을
생산하는 일은 과학기술자들과 각종 정
책수립기관의 전문가들이 하지만, 이러
한 과학기술의 생산물들이 사회 속에
도입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부담하면서
그것을 견여하는 이들은 바로 사회
속의 시민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과학기술에 대한 공포의 이해는 중요하
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받아
들이고 혁신하는데 비교적 신속하게
한다. 정부나 기업 모두 연구개발을 왕성
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신기술을 이용
하여 창업하는 벤처기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시민대중은 신기술을
르 근거와 없는 비교적 빠르게 수용하
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수용성은 과
학기술의 혁신과 발전 측면에서 귀중
적으로 작용하지만 신기술이 파생하는
해결적인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제계적으
로 관리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선구일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아직
도 위험은 기술적으로 극복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관리는 과학기술자들이 전담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주의적 환상
은 개정적 오해이다. 위험은 기술적 성격
과 더불어 사회적 성격을 매우 크게 가
지고 있다. 예컨대 위험 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는 ‘과연 얼마나
위험한가’(기술적 문제) 보다는 ‘정부나
산업을 믿을 수 있는가’(인식의 문제)
,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를 얼마나
지 있을까’(경제적 문제), ‘왜 하지
면 내가 위험부담을 지나야 하는가?”(평행성
의 문제)’ 등 사회적 문제들이 관심의
초점인 것이다.
따라서 보면 위험에 관한 결정은 기
술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value) 지향
적적 문제이다. 산업화방의 위험에 대
한 치유책으로서 풀어 biện히 것이 제시된
명제는 정보화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
에게 여전히 유용하다. ‘새로운 것들이
당장 잘못된 점착을 빠지고 아울러 진
품의 통합을 간직하게 하면서 우리들
에게 은려되는 새로운 것들을 진정 새
롭게 생각하고,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
는’ 용기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다.
(김영환. 디지털알리스)